포대화상 롤모델로 전법을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우리나라 사찰 도량에 포대화상(包袋和尙)이 모셔져 있는 곳이 많다. 포대화상은 뚱뚱한 몸집에 큰 배를 내밀고, 늘 웃음을 띠고 있으며, 등에 포대(걸망)를 짊어지고 있다. 포대화상은 중생이 그 어떤 것을 요구하든 포대에서 돈이든 과자이든 물건이든 꺼내서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다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포대화상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미륵부처라고 한다. 중국 사찰의 99%가 포대화상이 모셔져 있다. 사찰 일주문에 모셔진 경우도 있지만, 승려 대중이 많은 사찰에서는 공양간 중간에 모신다. 점심 공양 때는 입승스님이 포대화상에 예 올리는 의식을 치른 뒤에 대중이 공양한다. 그 사찰의 상주대중이 편안하게 공양하며,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호위해주는 호법신장 의미로 보였다.

그런데 이 포대화상은 어떤 분인가? 화신이 아니라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였다. 포대화상은 당나라 말기, 절강성(浙江省) 봉화현(奉化縣)의 승려 계차(契此, ?~917)이다. 계차 스님은 늘 길에서 생활하며, 하늘을 이불 삼아 길에서 잠을 청했고, 저자거리에서 중생들과 함께 한 보살이다. 또 계차 스님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날씨를 물으면, 답변해주어 농부들이 대처했고, 홍수가 날 것을 예상해 사람들이 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계차스님이 열반한 후에 계차의 고향인 봉화현에서 그를 미륵으로 떠받들었는데, 미륵불교의 발상지가 바로 계차 스님 고향이다.

포대화상, 절강성 승려 계차가 모델
저자거리서 중생과 동고동락한 스님
'입전수수' 우리도 중생 속으로 가자

필자가 포대화상을 거론하는 것은 한국불교에서 전법의 롤모델로 포대화상을 이미지화 하면 어떨까 해서다. 근자 한국불교 대표 종파인 조계종에서 '성불하십시오'가 아닌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는 말로 바꿔야 한다며, 포교에 고조돼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찰 벽화에 십우도가 그려져 있는데, 10번째 그림이 포대화상을 모델로 한다. 십우도란 소는 번뇌를 상징하고, 목동은 선자(禪者)를 비유해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여정을 10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행자가 고군분투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단계가 아홉 번째인 반본환원(返本還源)이다. 그런데 아홉 번째 다음 열 번째가 입전수수(入纏垂手)이다. 마지막 그림인 입전수수는 포대화상과 동자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이다.

입전수수는 수행자가 정각을 이룬 뒤에 고요한 곳에서 해탈 경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속으로 들어가 중생과 함께 한다는 의미다. 입전수수 설명에서 승려가 계율 상 금기할 곳이 술집과 고깃간인데, 이 또한 중생이 머무는 곳으로 제도코자 한다면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간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선객들이 애독하는 자각 종색의 〈좌선의(坐禪儀)〉 첫머리에서도 "무릇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대비심을 일으켜 큰 서원을 세우고, 삼매를 닦되 중생을 제도할 것이요, 자기만을 위해서는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과거 한국불교가 선(禪)을 위주로 하다 보니, 전법에 눈을 돌리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근자 들어 한국불교 어느 종파나 전법이 강조되면서 중생 교화에 마음 기울이고 있다. 불교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포대화상을 롤모델 삼아 열심히 전법하면 어떨까?

내가 바라는 공약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꿀벌을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무렵이면 엄청난 꿀벌이 사라지는 꿀벌군집붕괴 현상이 몇 년째 벌어졌다. 산림청은 이 현상의 원인을 밀원숲 부족에서 찾고 있다. 자연적인 숲을 없애고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 등을 심어서 꿀을 더 많이 생산하겠다고 한다. 세계적인 흐름은 자연적인 숲의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는데도 말이다.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한 미국의 메릴랜드주에서는 벌에게 좋은 나무 6개를 소개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로 벚나무, 산딸나무, 참나무, 단풍나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밀원식물이라고 선정한 백합나무는 메릴랜드주가 자생지이지만 꿀벌에게 좋은 6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 숲에 있는 나무들을 그대로 두는 게 벌에게 가장 좋다는 걸 메릴랜드주에서 보여주고 있다. 오직 꿀 생산을 위해 다양한 나무가 있는 숲을 왜 몇 가지 종류의 단일한 숲으로 바꾸려고 할까?

2월 중순부터 숲은 딱따구리의 드러밍 소리로 경쾌하다. 둥지를 만드느라 부리로 나무를 두드리는 걸 '드러밍'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들리면 틀림없이 봄이 온 거다.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기르려고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이니까. 딱따구리

양봉 위해 밀원숲 조성하는 산림청
자연적 숲 확대하는 게 세계 추세
'숲에 손 안대겠다' 공약 나왔으면

는 둥지를 뚫기 전에 나무줄기를 빙 돌아가며 부리로 쪼아본다. 둥지로 삼을만한 나무인지 살피는 것이다.

이토록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그곳에다 새끼를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새들은 새끼를 낳고 기르기 위한 번식용으로 둥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딱따구리는 번식을 위한 둥지뿐만 아니라 잠자기 위한 둥지도 갖고 있다. 어떤 둥지가 번식 둥지인지, 잠자리 둥지인지를 나무 굵기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번식 둥지는 새끼를 여러 마리 길러야 해서 나무줄기가 적어도 지름 30㎝는 넘어야 한다. 이 정도 크기의 나무가 있는 숲을 탄소 흡수력이 떨어진다며 베어버리고 어린나무를 심는 게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이다.

딱따구리가 파 놓은 둥지에 이런저런 신세를 지며 사는 동물이 무려 15종이나 된다. 딱따구리가 사용하고 있는 둥지를 파랑새, 동고비, 큰소쩍새 등이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둥지에는 소쩍새, 원앙, 하늘다람쥐, 다람쥐뿐만 아니라 말벌 같은 곤충도 와서 집을 짓고 산다.

나무가 죽으면 나무딱정벌레, 나무좀벌레, 기타 곤충들이 찾아와 나무를 먹는다. 이들은 나무를 소화하는 곰팡이를 가지고 온다. 딱따구리는 죽은 나무를 두드려 나무를 쪼개고 벌레를 찾아먹는다. 이렇게 나무를 노출시킴으로써 더 많은 곤충과 곰팡이가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증가시킨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무는 흙으로 돌아가 재활용된다. 진정 우리 숲을 가꾸는 건 누구인가?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치인들에게 기후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숲을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잘 보존하겠다'가 내가 가장 요구하고 싶은 공약이다.

社 說

정부·의료계, 스님들의 호소를 들어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 면허 박탈'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고, 의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다. 전공의들의 이탈에 항암주사를 맞는 데, 6시간을 대기해야 하고, 예약했던 수술들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기도 했다고 한다. 한시가 급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시술을 받지 못한다니 이것이 진정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다.

이런 상황이니 불교계 종단 수장들마저도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생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다. 전공의 여러분들의 현장 복귀는 생명의 가치를 살리는 소중한 공헌이다. 조속한 복귀로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도 각각 발표한 호소문에서 의료진들이 조속하게 환자 곁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했다. 또한, 총무원장스님들은 정부에게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진과 대화해 나갈 것도 촉구했다.

스님들의 말처럼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도리다. 정부도 의료계도 한 발짝 물러서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 그것이 지금 할 일이다.

승가결사체, 풀뿌리 전법 이끌길

조계종 교육원이 각계각층에서 전법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승가결사체 25곳을 선정해 종단 인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승가결사체 신규 단체는 7곳이며, 18개 단체를 재인증했다. 올해로 7년째를 '승가결사체 전법교화 활동 연수인증 제도'는 전법교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승가상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노숙인 복지포교로 잘 알려진 '다나'의 탄경 스님이나 소외계층에 빵을 구워 전달하는 '자비애빵' 결사체가 발굴되기도 했다.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스님들이 결사체를 만들어 인증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상월선원 결사정신을 계승해 역사·환경·문화재 등을 순례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상월삼조회'를 만들어 인증받았고, 세광 스님은 군장병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포교에 나서는 '호국붓다'라는 결사체를 구성했다.

이밖에도 수도권 및 지방 소재 대학 불교학생회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불전법단', 계층별 출가안내를 기획해 출가진흥에 기여할 '네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법·자비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비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많은 '탈종교사회'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새로운 신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스님들이 펼치는 승가결사체의 전법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승가결사체가 풀뿌리 전법을 이끌어 불교중흥의 초석을 놓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